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브리핑 NABO Briefing
2017. 11. 24. 제26호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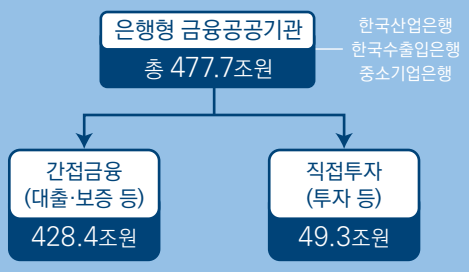
"정부는 2007~2017년에 걸쳐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정책금융 수행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 11.5조원을 출자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금융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하여는 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조선·해운업 관련 부실채권 증가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현황과 주요 정책금융 사업을 분석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2017년 6월 기준)



주요 분석

1.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필요
2.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 범위 중복 지양 필요
3.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 필요

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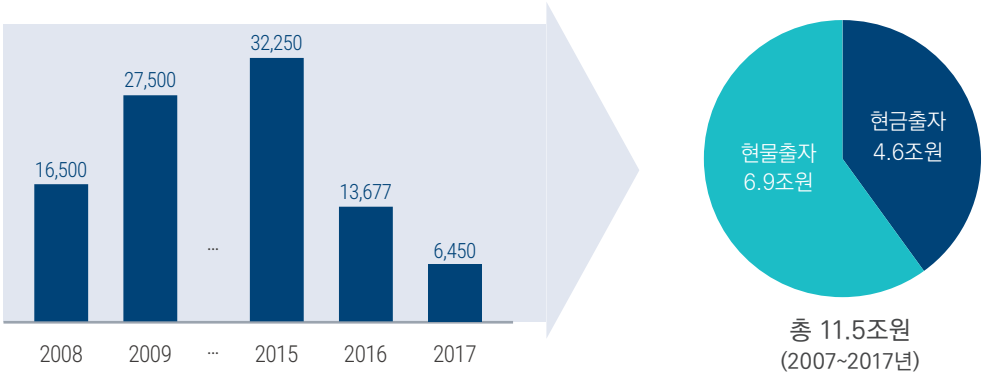
I.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현황

1.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현황

2007~2017년의 기간 동안 정부는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책금융 지원 및 자본 확충을 위해 총 11.5조원(현금출자 4.6조원, 현물출자 6.9조원)을 출자

최근 조선·해운업 부실 등에 따라 최근 3년(2015~2017년)간 정부는 총 5.2조원을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출자하였으며, 이는 2007~2017년간 출자 총액의 45.4%에 해당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현황(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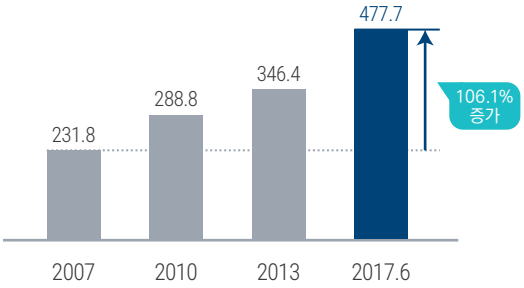


2.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대출, 보증 및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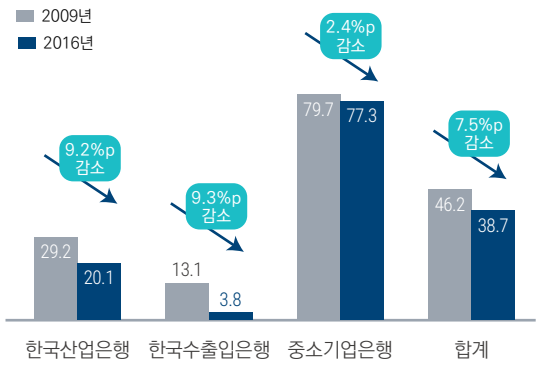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보증 및 투자 잔액은 2007년 231.8조원에서 2017년 6월 말 477.7조원으로 245.9조원(106.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2009~2016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비중은 한국산업은행이 9.2%p, 한국수출입은행이 9.3%p, 중소기업은행이 2.4%p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총 7.5%p의 비중 감소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대출·보증(간접금융) 및 투자(직접금융) 연도말 잔액(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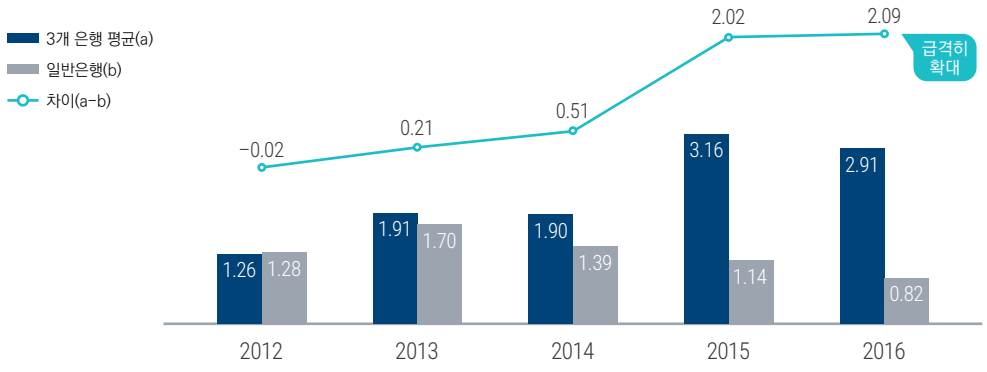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말 중소기업 대출·보증 잔액 비중(%)



3.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 악화

조선, 해운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한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과 일반은행 간의 평균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 비율 차이는 2012년 말 △0.02%p에서 2016년 말 2.09%p까지 급격히 확대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 비율(%,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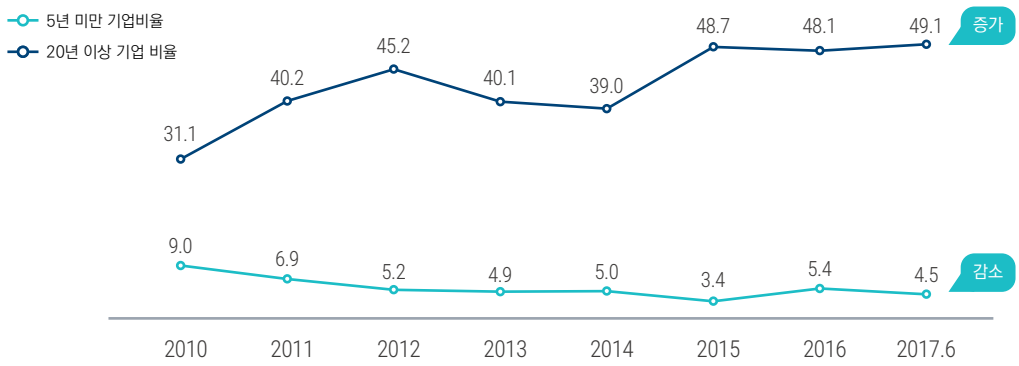


Ⅱ.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1. 한국산업은행 온렌딩(On-lending) 대출 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필요

연도별 온렌딩 대출액 중 업력 5년 미만의 신생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0년 9.0%에서 2017년 6월 4.5%로 감소한 반면, 업력 20년 이상의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0년 31.1%에서 2017년 6월 49.1%로 증가

한국산업은행 연도별 업력별 온렌딩 대출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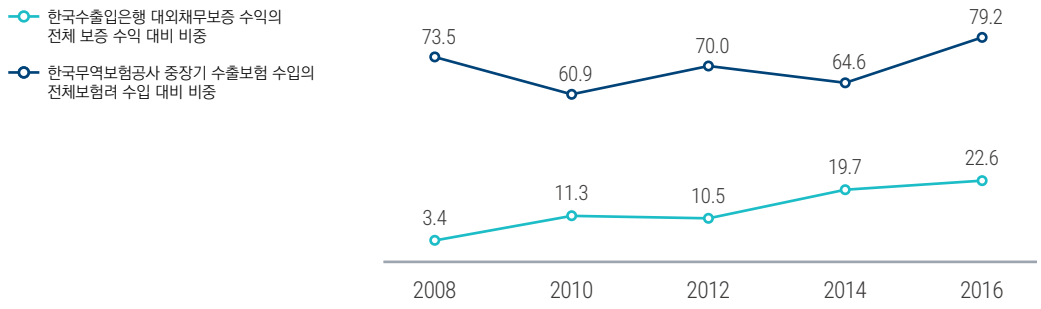
*온렌딩 대출: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중개금융기관 등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기관 책임 하에 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대출 방식임.

개선방안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나, 정책 목적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개금융기관이 지원 대상을 엄선하여 선별하도록 하는 등, 온렌딩 대출에 대한 관리를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

2.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의 업무 범위 중복 지양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보증료 수익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각 기관의 전체 보증·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수익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 수입의 각 기관 전체 보증·보험료 수입 대비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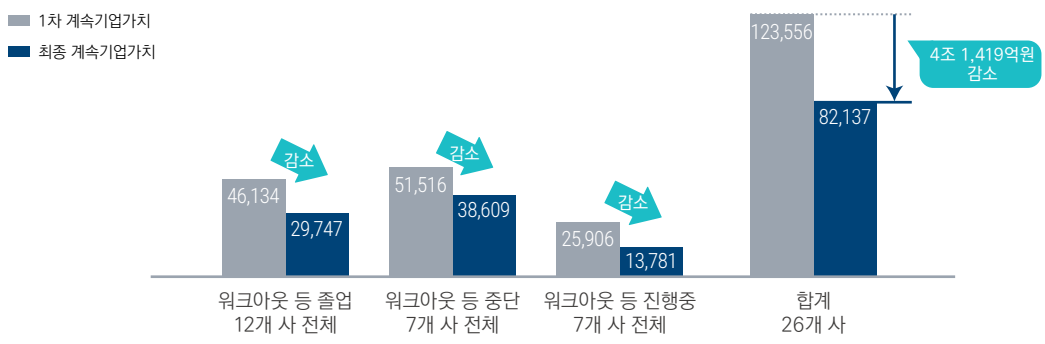


개선방안 한정적인 재원의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인수 범위와 금액 한도 등 시행령 규정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3.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 필요

200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추가 자금 지원 등을 위해 2차 이상의 기업평가를 수행한 26개 기업 중 일부는 대규모 자산 매각의 가능성 등은 있으나,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가치가 감소함

2차 이상의 기업평가 수행 기업의 워크아웃 등 실시 이후 계속기업가치 변화(2017년 1월 현재, 억원)



*계속기업가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개선방안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 평가 시, 기업과 해당 산업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시한 향후 자구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지에 대한 검토와 이행과정에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한 향후 현금흐름 추정 필요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담당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문의 | 02-788-378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